자선 기부

-개인퇴직계좌를 통해-

개인퇴직계좌(IRA)를 통한 자선 기부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교나 사역에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적격 자선 배분(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, QCD)을 활용하여 IRA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. 적격 자선 배분은 개인퇴직계좌에서 자선단체로 직접 전달하는 기부금입니다. 이는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선교나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.

선교 기금 모금파트너
presbyterianfoundation.org

Presbyterian FOUNDATION

자선 기부

-개인퇴직계좌를 통해-

개인퇴직계좌(IRA)를 통한 자선 기부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교나 사역에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적격 자선 배분(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, QCD)을 활용하여 IRA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. 적격 자선 배분은 개인퇴직계좌에서 자선단체로 직접 전달하는 기부금입니다. 이는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선교나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.

선교 기금 모금파트너
presbyterianfoundation.org

Presbyterian FOUNDATION

자격 요건

-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부자는 만 70.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해당 배분은 원래 과세 대상이 되는 배분이어야 합니다.
- 기부금은 세금 공제 대상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**기관에 직접** 전달해야 합니다. 기부자 조언 기금(donor-advised funds)과 일부 사설 재단은 제외됩니다.
- 연간 한도: 111,000달러
- 적격 자선 배분(QCD)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(Form 1040)의 IRA 배분 항목에 보고해야 합니다.

혜택

- 적격 자선 배분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의 최소 의무 인출액(Required Minimum Distribution, RMD)을 충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적격 자선 배분 금액은 기부자의 조정총소득(Adjusted Gross Income, AGI)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메디케어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- 표준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기부자도 세금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자선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.
- IRA 인출액에 부과될 수 있는 소득세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예시

74세인 샌드라는 동네 교회에 기부를 하고 싶어합니다. 자신이 다니는 지역 교회에 2만 달러를 기부하고자 합니다. 산드라의 개인퇴직계좌에는 50만 달러가 있습니다. 산드라는 IRA 관리 기관에 요청하여 2만 달러를 교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습니다. 적격 자선 배분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, 산드라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자선 기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세금 절감 효과는 여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. 교회에 전달한 2만 달러는 해당 연도의 최소 의무 인출액에 포함되며, 산드라는 자선 기부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.

자격 요건

-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부자는 만 70.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해당 배분은 원래 과세 대상이 되는 배분이어야 합니다.
- 기부금은 세금 공제 대상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**기관에 직접** 전달해야 합니다. 기부자 조언 기금(donor-advised funds)과 일부 사설 재단은 제외됩니다.
- 연간 한도: 111,000달러
- 적격 자선 배분(QCD)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(Form 1040)의 IRA 배분 항목에 보고해야 합니다.

혜택

- 적격 자선 배분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의 최소 의무 인출액(Required Minimum Distribution, RMD)을 충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적격 자선 배분 금액은 기부자의 조정총소득(Adjusted Gross Income, AGI)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메디케어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- 표준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기부자도 세금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자선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.
- IRA 인출액에 부과될 수 있는 소득세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예시

74세인 샌드라는 동네 교회에 기부를 하고 싶어합니다. 자신이 다니는 지역 교회에 2만 달러를 기부하고자 합니다. 산드라의 개인퇴직계좌에는 50만 달러가 있습니다. 산드라는 IRA 관리 기관에 요청하여 2만 달러를 교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습니다. 적격 자선 배분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, 산드라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자선 기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세금 절감 효과는 여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. 교회에 전달한 2만 달러는 해당 연도의 최소 의무 인출액에 포함되며, 산드라는 자선 기부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.

PFM.21.26.01K presbyterianfoundation.org